이기는 삶

똑똑하고 일 잘해도 성공 못한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인생의 등용문(登龍門)으로 명문대를 나오고 집안이나 학연의 인맥이 탄탄한 사람에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는 혜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의식이 없이 자신의 삶을 누렸던 것이 이 세상 지배계층의 의식구조(意識構造)였다.

불평등한 계급제도

고려시대의 고위급 관리의 자식은 자동으로 벼슬길에 나가게 되고 신분제도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의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고, 상놈의 자식은 그대로 상놈이 되고, 백정의 자식은 백정이 되어야 했다. 태어나면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계층구조가 오늘날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과 중인계급 그리고 노비계급으로 철저히 나누어져 있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사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이 사회는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는 불평등의 사회이다. 부자의 자식은 부자요, 빈자(貧者)의 자식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식이라고, 교수의 자식이라고, 장관의 자식이라고 취직이나 진급, 그리고 성과급이나 장학금에서 항상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한 사회의 불평등이 2030 세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위정자들의 청문회를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기야 조선시대의 황희 정승도 사위와 자식의 비리로 말미암아 정승에서 물러나는 곤욕을 치러야 했으니 오죽하랴? 아마 황희 정승도 지금 청문회에 나오면 청렴결백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고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자

본인의 인덕과 실력보다는 가족과 인척의 부정부패를 더 크게 보고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될 뿐이다.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돈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지탄(指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해도 승진의 우선순위는 간부의 자식이나 인척이다. 그리고 차순위가 학연,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등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지금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이겠는가? 지나온 과거사가 다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등의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과거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지금, 역시나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사람이란 권력과 돈이 있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 내 친척, 내 지인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이젠 그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자. 대통령도 관행이라고 행하다가 탄핵을 당하고 뇌물수수로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노력하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선순환(善循環)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영적 상징과 꿈 〈21〉

부제: 도형으로 본 네 생물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글에서 네 생물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성경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둘째, 「네 생물」은 속 하나님과 그를 둘러싼 두 마귀, 그리고 얼굴마담 격의 인간 이렇게 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생물은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긴자께서 말씀한 「네 생물의 왕」은 마귀 옥을 부수고 나온 하나님이며 이긴자와 동의어라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로 등장한 '네 생물의 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천도교의 영부(靈符)〉

동학 영부(靈符)에 담긴 비밀

영적 비밀을 품고 있는 상징은 종종 기하학적 도형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티벳 불교의 만다라, 인도 명상 계열에서 등장하는 얀트라(Yantra), 그리고 최제우 하나님이 받은 영부(靈符)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가 도형을 우주의 신비를 품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꿈이 영적 내용들을 가득 품고 영상의 형태로 등장하듯, 깊은 영의 층의 비밀을 품은 기하학적 도형이, 꿈이나 비전을 통해 스스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 중 수운 최제우 하나님을 통해 등장한 천도교의 영부(靈符)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위 그림 참조)

이 영부는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運), 금운(金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은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이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이 도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파해(破解)해 보면 그 숨겨진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원래의 영부 ◎에서 좌우의 부분을 ◎ 끊어내면, 이렇게 ◎ 됩니다.

다시 둥근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면 亞 가 나옵니다.

이것이 숨겨진 영부의 본모습입니다. 버금 아(亞) 안에 점(丶)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쉬워집니다.

亞 가운데의 점(丶)은 인간을 상징하고, 아(亞)는 '궁궁(弓弓)을 배궁(背弓)'하여 나온 백십자,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최제우 하나님의 영부는 백십자 한울님이 인간을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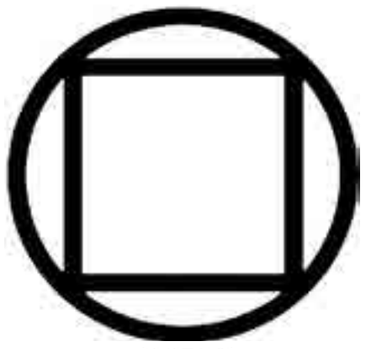
이는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내 안'에 한울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한울님 안'에 인간 내가 들여진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더욱 진화된 형태의 시천주(侍天主)를 예고하고 있는 영부(靈府)입니다.

수운(水雲) 이후의 시대가 오면 이 영부가 한층 진화한 형태로 발전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본 네 생물의 왕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네 생물의 왕(王)'이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네 생물의 왕〉

물론 이 도형은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것도, 누군가의 알음알이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꿈과 꿈의 해석이 그러하듯 깊은 무의식의 층, 영의 층에서 꿈과 비전의 통로로 스스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물 위로 솟구친 물고기를 낚아채듯 말이지요.

가운데의 정사각형은 네 생물의 상형입니다. 사각형의 윗변은 의식의 층, 표층이니 네 생물 중 인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네 생물 중 앞면의 '인간'에 해당합니다.

사각형의 우측과 좌측 변은 묵시록에서 독수리와 사자로 묘사된 두 얼굴, 두 마귀 신에 해당됩니다. 맨 아래 변은 무의식의 층, 제일 깊고도 어두운 층이니 마귀 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의 제일 뒤쪽의 얼굴, 송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圓)이 '5번째 생물'로 등장합니다. 네 생물(4) + 원(1)이니 '다섯 생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은 네 생물을 통째로 점령하듯,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접원이 바로 네 생물의 왕(王), 이기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 도형은 이기신 하나님(○)에 삼킨바 된 네 생물(□)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 인신합일(人神合一)을 이룬 형상 ◎ 입니다.

이 도형은 수운(水雲) 최제우 하나님의 영부와 근본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째로 품고 있는 형상이지요. 같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등장한 것들이니 같은 의미를 품고 있을 수밖에요.

다만, 동학의 영부(靈符)에서는 인간이 그저 한 점(丶) 즉, 한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 뒤의 '네 생물의 왕'에서는 사람이 사각형 즉, 네 생물로 확장된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지요.

이는 이긴자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 즉, 네 생물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한 생물'일 뿐인 인간과 '네 생물'로서의 인간은 실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생물의 왕'에 담긴 존재론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생물'이란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단일한 한 존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신의 병존체임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하느냐,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생사를 건 영적 접전(接戰)은 이미 필연이며 이것이 바로 주체영 자리를 놓고 벌어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생물의 왕(王)'이란 말은 '나' 자리를 두고 벌어진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마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네 생물의 왕'에는 나라는 마귀를 죽이고, 빼앗겼던 주체영 자리를 되찾은 이기신 하나님의 지난(至難)한 여정과 그 영광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네 생물의 왕', 나의 자화상

다시 한 번 '네 생물의 왕(王)' ◎ 도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그림의 사각형, 각 변, 그리고 원 모두가 서로 접점을 이루며 연결되어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 최제우 하나님의 영부에서 아(亞)와 점(丶)이 떨어져 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 도형의 사각형, 각 변, 그리고 원 모두가 각각 다른 영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존재로 통섭(統攝)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즉, 사각형의 윗변인 인간도 나요 좌우변, 마귀도 나요, 아랫변인 마귀 옥에 갇혀있던 하나님(속 하나님)도 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각형을 품고 있는 외접원, 이긴자 하나님이 바로 '나'입니다. 이 도형의 백미(白眉)는 이기신 하나님, 외접원이 사각형, 사람을 품어 '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귀 신이 주체영이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왕입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해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자는 그저 인간이며, 그의 주체영이 마귀 신인 한, 그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의 왕은 여전히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긴자 하나님, 외접원이 네 생물을 통째로 품은 이 장면은 하나님이 네 생물 모두의 왕(王)이 되어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다시 차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도형이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람(四覽)은 하나님과 마귀의 중합체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代身) 나를 해 줄 때, 인간은 네 생물을 넘어 다섯 생물 즉, 완성의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네 생물의 왕」은 내 '밖'에 있는 주님, 나 아닌 '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代身) '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며 '나 자신'입니다.

다시금 '왕' 자리는 '나' 자리입니다.

해서 「네 생물의 왕」, 이 그림은 이기신 하나님의 초상이자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자화상입니다.*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
The Time to Return to God

지금은 본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 Now is the time to return to the original God.

하나님이 안되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 If you don't become God, you will be thrown into the fire hell that never goes out.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느냐? 선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 Are you God? Otherwise, will you go into the pit of fire? The choice is one of two.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었다.
▶ Before the Victorious God came, all people in this world were living in a fate that had to be destroyed.

하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 이긴자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팔자가 되어버린다.
▶ However, after the Victorious God comes out, the person who meets the Victor Christ has a destiny that lives forever and ever.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전지전능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 God has made the Victorious God Almighty God.

그러므로 이긴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이긴 가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 Therefore, the person who follows as the Victorious God leads will become a winner and God.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영생 얻는 방법

여러분들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6,000년 묵은 피야 바로. 그 6,000년 묵은 마귀가 나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 마귀가 나라는 의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붉은 용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 소탕하니까 뭐 딴 데가 있는 줄로 알고 딴 데를 찾아보고 그러는데 사실 나라는 의식이 붉은 마귀야. 자신의 붉은 용 마귀하고 투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구원이지 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못 이기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 투쟁하는 방법이 열심히 전도해라 그랬죠?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그 마귀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가 열심히 전도만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슬성신을 연결시켜줘요. 이슬성신을 계속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 이슬성신을 받으면 반드시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이 나라는 주체의식과 반대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2000. 9. 10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 중에서